



전국 > 전북

## 조선 후기 300년간 '중대범죄'심문기록 번역 출간(종합)

전주대 한국고전연구소, '추안급국안' 10년만에 완역 90권 발간

역모-변란 세세히 기록...생활사 풍부해 드라마·영화 소재 활용 가능

(전주=뉴스1) 김춘상 기자 | 2014.09.26 14:33:32 송고



전주대학교 한국고전연구소(소장 변주승)가 26일 대학 본관 회의실에서 공개한 국역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

전 90권(한국고전연구소 제공) 2014.09.26/뉴스1 © News1 김춘상 기자

조선 후기 300년 동안 변란과 역모 등의 중죄인들을 체포하고 심문한 기록이 90권의 방대한 책으로 출판됐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연구소(소장 변주승)는 26일 대학 본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을 완역한 ‘국역 추안급국안’ 90권을 공개했다.